

영국의 '북토크제도' 운영실태

공익사업으로 추진...시장점유율 점차 높아져

李斗暎

출판협회 사무국장

영국의 서점에서 책값을 지불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줄을 서고 보면, 어느 서점에서건 예외없이 카운터 위에 매달린, 책을 지고 나르는 모습의 새가 그려진 행잉 카드형 광고와 만나게 마련이다.

이것이 책을 선물로 주고 받는 건전한 선물 문화를 창출해 낸 '북토크'이란 이름의 도서권 취급점임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북토크제도는 독자들이 서점으로부터 북토크를 구입해 그 서점이나 또는 다른 서점에서 토크 카드에 붙어 있는 증지의 액면가액만큼 원하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영국의 북토크제도를 '90년대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목표아래 지난 해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는데, 그 하나가 7월1일부터 가동된 새로운 컴퓨터 처리시스템의 도입이다. 용량을 2배나 배가시킨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다양하고 진보된 시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는, 서점에서 간편하게 회계 및 관리처리가 가능하도록 증지제도를 새롭게 개편,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89년도 북토크의 매상고가 1,508만8,000파운드로 신장된 사실을 세번째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매상고는 직전년도인 '88년도와 비교해서 172만9,000파운드가 늘어난 것이며 신장률면에서는 13%나 된다. 북토크의 매상고가 '80년도에 겨우 600만파운드이던 것이 10년 사이에 2.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괄목할만

영국에서 북토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출판·서적상계의 共同善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밀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의 불필요한

일체의 간섭이 없고,

공탁제도나 인지세 등

이 제도에 대한 행정적, 세제상

부담이 없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북토크의 매출 신장은 그들로 하여금 야심만만한 '90년대 발전채비를 갖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토크의 매상고가 이렇게 급성장하자 출판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도 3%로 쉼썩 뛰어 올랐다. 결국, 북토크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영국내에서의 도서시장이 3%가량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영국 북토크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의 비밀은 우리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일본의 도서권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도서권제도의 원조격인 영국의 그것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소개된 일조차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난 달 파리에서 개최된 저작권심

포지엄 참석과 유럽의 ISBN제도 운영실태를 돌아보는 기회에 잠시 북토크제도에 관해서도 궁금한 일들을 알아 볼 기회를 가졌다.

북토크제도는 선물로서 책을 주고받는 것을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새로운 독서대중을 서점으로 끌어들이고 그럼으로써 구매촉진과 새로운 수요창출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토크는 책 대신 팔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어려움이나 재고의 제한 때문에 책을 판매할 수 없을 경우 이 토크제도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결국, 서점 간의 협력에 의해서 다른 선물산업으로 흘러들어갈 자금의 일부를 출판서적상계가 흡수할 수 있으며 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북토크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실시중인 도서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차드 앤드 윈터스社의 해롤드 레이몬드 사장의 제안을 영국 서적상계가 받아들여 1932년부터 처음 시행함으로써 이 제도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좋아 실시한 지 10년만에 1942년에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북토크회사를 별도로 설립,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도서권제도가 지금은 일본, 대만,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수십 개 국에서 널리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북토크제도의 개요

북토크제도는 컬러풀한 카드와 증지로 구성

되어 있다. 50페니짜리와 1파운드, 2파운드, 5파운드, 10파운드, 20파운드짜리 등 모두 6종으로 되어 있는 증지를 독자가 원하는 액면 가액만큼 카드에 붙여줌으로써 서점에서 현금처럼 통용된다. 물론, 북토크의 유효기간도 없다. 초기의 카드에는 12개월 또는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둔 때도 있었다지만, 모두 제한 없이 통용된다. 그러나, 카드 한 장에는 6장 이상의 증지를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자연히 최고가액을 120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는 책과 독서의 즐거움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꽤 다양하다. 가령, 윈드서핑을 즐기면서 책을 읽는 미키마우스의 모습이라든가 우주시대의 산타 할아버지라든가 책벌레대학이라든가 크로스워드 등 약 50종에 이르는 카드를 고르는 즐거움만으로도 남녀노소가 모두 북토크를 사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 카드의 증지제도를 북토크 창설 57년만인 지난 해 바꾼 것이다. 카드와 증지로 된 북토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지의 액면가액을 초기 20페니와 25페니짜리를 없앴다. 이는 책값 등의 상승에 따른 이용가치를 감안한 조치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서점에서 카드로부터 증지를 떼어낼 수 있게 변화시켜 정산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와 증지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새로운 EPOS(전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활용토록 했다.

카드에 증지를 붙이는 이러한 북토크의 운영방식은 우리나라 도서권제도의 과중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90. 2. 10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 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 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어테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어테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일간 스포츠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 <셈야제>와 농부<마이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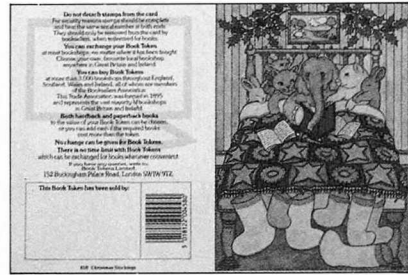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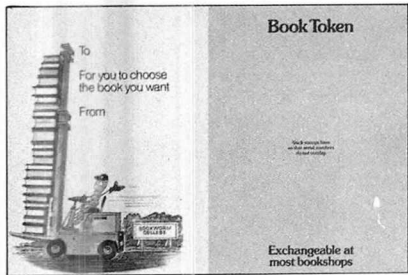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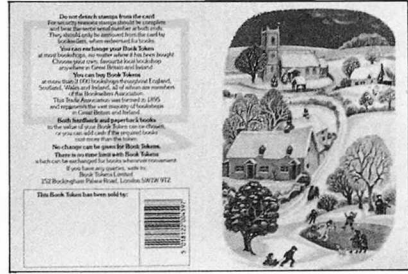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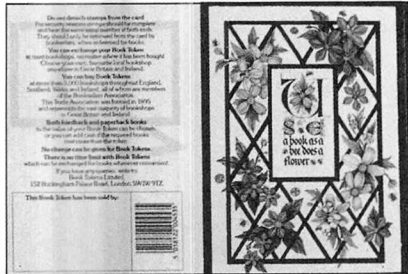
- 주요목차 ●농부<마이어사건>의 충격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현재 성경은 위서(偽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셈야제>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751-8991
을지서적 : (02)272-5871

●오다가 오시아 역음 ●정우인 옮김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 3,500원

시 어 사 대표전화 : (02)549-6817
F A X : (02)549-6816



북토크 카드. 책과 독서의 즐거움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펴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인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상품권법에서 도서권에는 무조건 5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구상중인 1,000원 권의 도서권에 5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액면가의 5%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과중한 인지세 부담은 결국 도서권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제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1,000원 권의 증지를 카드에 붙여 사용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될 것이다.

북토크는 영국서적상협회 회원만이 팔거나

교환할 자격이 있다.

영국서적상협회는 원래 예이레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분리됐다고 한다. 영국 본토에만 약 3,000개의 서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니 북토크 취급 서점수는 3,000개 내외가 된다. 북토크회사가 서점에 액면가액의 87.5%에 출고하고, 교환되어 돌아온 북토크의 정산도 87.5%에 한다. 북토크 발매서점에서는 12.5%의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정산시 12.5%를 공제한 차액만 수령하게 되므로 사실상 서점 입장에서는 북토크 판매마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발권서점으로서 교환

되는 도서에 대한 마진을 선취하는 셈이고 교환해준 서점 입장에서는 교환된 도서에 대한 마진의 일부를 발권점에 양보하는 형태로서 취급 서점 간의 동지적 공동협력으로 도서판매량의 증대를 꾀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토크 판매에 열성적이다. 발권점과 교환점을 구분해 놓고 볼 때는 서로 다른 서점이지만 취급점은 모두 발권점인 동시에 교환점이기도 하고 북토크의 발권액과 교환액은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어 별문제 없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대형서점일수록 북토크의 매상비율이 높아 W.H.스미스서점의 전국 체인점에서의 북토크 매상비율이 19%나 된다는 것이 북토크회사의 설명이다.

정산은 연 4회뿐

만약, 북토크 취급을 중단하고 거래를 청산할 때는 서점이 보유한 북토크 재고분에 대해서는 20%를 공제 후 정산한다.

북토크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및 신학기 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영국출판·서적상회는 북토크의 판매 신장을 위해 책을 선물로 주고받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적상협회는 "BA's Books for Giving" 이란 선물용 도서목록을 제작, 배포하고 북토크회사도 갖가지 서점용 북토크 선전자료를 제작, 판매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선전, 광고행위와 캠페인이 '80년대의 북토크 판매를 지속적으로 급진장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그들은 분석

하고 있었다.

북토크제도는 건전한 선물문화의 조성과 도서보급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공공적 사업이다. 영업이익은 전무하다시피 한 점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파트타임제 직원 15명을 포함한 27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북토크회사로서도 북토크 판매에 의한 직접적인 사업수익은 하나도 없다.

다만, 북토크회사의 기본적인 수입재원은 카드 판매수입(북토크 증지를 첨부할 수 있는 카드의 가격은 장당 1.70파운드임)과 유통잔고에 대한 이자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잔고 중엔 분실분도 상당액에 이르는데 분실률이 25%나 된다고 한다.

영국의 북토크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출판·서적상계의 자체적 노력이 밀반쯤되고 있지만, 북토크제도 운영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일체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고, 우리처럼 등록이나 공탁제도, 인지세 부담 등이 제도에 대한 행정적, 세제상 부담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사회제도적 배경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컬러에화집

돈이 보낸 편지

이익용 지음



돈이 보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진실은 단 한 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예화 89편이 있습니다.

(150쪽 ₩ 2,800)

● 컬럼집
● 고독이라는 교만
● (212쪽 ₩ 2,500)

● 에세이집
● 내 놀던 옛동산
● (148쪽 ₩ 2,000)

독립대림기획
전화 : 02-275-5296